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에서 ‘부부유별’의 의미*

: 간재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를 중심으로

Meanings of ‘Ethical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 and Wife’

by Means of Family Life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Yi Duk-Hong’s *Bubuyubyeoldo*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정 정 기**
교 수 옥 선 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BD : Chung, Chung-Kee

Professor : Ok, Sun-Wha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grasp the context of family life education under the Joseon Dynasty. As a first step to attain this goal, we used Yi Duk-Hong’s *Bubuyubyeoldo* as our main material and examined the meaning of ‘bubuyubyeol’ (夫婦有別) in family life education as it was defin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we found that ‘bubuyubyeol’ implied the strict avoidance of the opposite sex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ple and others as well as within the marital relationship. We also determined that in the family life education, ‘bubuyubyeol’ was closely related to ‘bujayuchin’ (父子有親), a concept that refers to the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is concept also, formed the basis of social relationships. These results imply that contemporary family life education will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1) when it presupposes a common basic concept pertaining to the contents of object-specific education as well as overall family life education, and 2) when direct education programs are executed in harmony with indirect education.

▲주요어(Key Words) : 오륜(five human relationships), 부부유별(ethical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부부유별도(*Bubuyubyeoldo*),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이덕홍(Yi Duk-Hong)

I. 서론

1. 문제제기

현대 한국사회는 가족이 지향할 최우선의 가치로 평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함께 가는 가족 2010’으로 출발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전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보건복지가족부, 2009)이며,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5 가족행복 더하기’(여성가족부, 2011)로 명명된 것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은 평등과 행복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기획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생활교육 중에서

* 본 연구는 2011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주저자·교신저자 : 정정기 (E-mail : dongjok2@snu.ac.kr)

도 가족 형성기부터 시작되는 부부교육에서는 부부의 평등에 그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현대의 가족생활은 각자의 삶의 양식에 따라서 달리 전개되는 생애과정 사건들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역량만으로는 스스로 선택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1, iv), 이를 가족생활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게 된다. 현행의 가족생활교육은 1990년대 이후에 서구의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가족관계학회를 중심으로 가족생활교육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가족생활교육이 시행되었다(옥선화, 1997). 2005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2006년에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비로소 가족생활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되어 그 역사는 오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가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시기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가족생활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됨을 강조한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교육서를 통해서 가족생활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가족생활교육은 형식적, 비형식적 가정교육(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1, 20)이라고 보기도 하나, 그 중에서 형식적 교육은 현대의 가족생활교육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부부교육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조선시대의 부부교육이 음양의 조화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다. 음양의 조화가 때로는 '내외(内外)'로 대표되는 남녀 분리나 차별로 논의되기도 하나, 조화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간재 이덕홍의 『부부유별도(夫婦有別圖)』를 주요 자료로 하여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가족의 생활교육에서 '부부유별'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시대 부부교육의 핵심인 부부유별의 의미를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덕홍이 제시한 문제의식이 조선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이해되어 나가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의 인적체계와 물적체계에 대한 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생활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가정은 생산과 소비, 일과 가족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인데, 현대사회의 가정은 소비와 가족에 특화된 측면이 강하고 이를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최근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가족생활교육에 있어서도 남편교육보다는 아내교육이 아버지교육보다는 어머니교육이 더 강조되었다. 최근 들어서 남편교육과 아버지교육 등 남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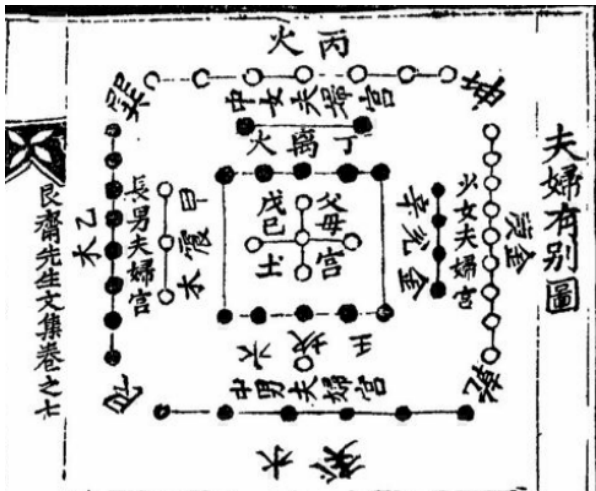
되었으나 실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어 여성 대상 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과 가정이 통합되었던 시대에서 일과 가정이 분리되는 시대로, 그리고 또 다른 통합의 시대로 가는 현 시대적인 상황에서 통합의 시대였던 조선시대의 가족의 생활교육의 기본틀인 부부유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현재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적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가족의 생활교육에서 오륜(五倫)의 한 조목인 부부유별이 가족을 교육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를 핵심 분석대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부부유별이 가족의 생활교육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이다. 설정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유별도』를 해석하고 이를 시대적 위상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하고 DB로 구축한 한국문집총간(민족문화추진회, 1986~2011)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부부유별의 의미가 드러나고 가족생활교육의 의미가 명료해질 것이다.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의 내용 중에서 부부유별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당시 교육에서 『소학(小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소학』에서 제시한 오륜의 부부유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이덕홍이 학자로서 지명도가 그리 높지 않거나, 그 이후의 논의에서 이덕홍의 입장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유별 개념에 대하여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만큼 폭넓게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덕홍은 『소학』 공부에서 내내 풀리지 않던 부부유별에서의 별의 해석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본 연구에서 『부부유별도』가 핵심자료로 채택된 이유이다.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는 오히려 일과 가정의 새로운 균형을 통해 통합을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현재적 의미의 가족생활교육 연구에 적합한 문헌이라고 판단된다.

16세기 후반기의 학자인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년~1596년)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년~1570년)시대의 문인으로서 선조21년(1588년) 여름에 48세의 나이에 복희씨(伏羲氏)가 황하(黃河)에서 발견한 하도(河圖)를 기반으로 부부유별의 의미를 해설한 『부부유별도』를 지었다.¹⁾ 청년기를 거의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찬하는 데에만 힘썼고 이황



출처 : 이덕홍. 『간재선생문집권7』 「부부유별도」.

<그림 1> 부부유별도

의 사후에는 관직에도 진출하였다(이병휴, 1997). 이항의 심성론 중심의 철학을 계승한 이덕홍의 독자성은 그의 역학사상에 있으며, 자신의 역학사상에 근거하여 「부부유별도」를 저술하여 천지의 수가 짝을 이루어 배치되는 방위가 '부부유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엄연석, 2003).

이덕홍은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별(別)에서 두 가지 의미를 파악하였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영역을 가지며 이는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영역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록 부부가 공동의 영역을 공유하나 일상생활은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안에서 생활하면서 안과 밖이 구분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²⁾

<그림 1>의 「부부유별도(夫婦有別圖)」는 부모궁(父母宮)이 가운데, 장남부부궁(長男夫婦宮)이 9시 방향에, 중녀부부궁(中女夫婦宮)이 12시 방향에, 소녀부부궁(少女夫婦宮)이 3시 방향에, 중남부부궁(中男夫婦宮)이 6시 방향에 자리잡고 있다. 오행에 따라 중앙은 토(土), 9시 방향의 동쪽은 목(木), 3시 방향의 서쪽은 금(金), 12시 방향의 남쪽은 화(火), 6시 방향의 북쪽은 수(水)가 배속된다. 각 궁은 남자와 여자 즉 홀수와 짝수가 짝을 이루고 있다. 1, 2, 3, 4, 5, 6, 7, 8, 9, 10의 수는 각기 임정갑신기계병을경무(壬丁甲辛己癸丙乙庚戊)의 십간(十干)에 배속되고, 팔괘인 건곤손간태이진감(乾坤巽艮兌離震坎)은 문왕팔괘방위도(文王八卦方位圖)에 따라 배치되었다. 1과 2, 3과 4, 6과 7, 8과 9는 남매를, 5와 10,

1과 5, 2와 7, 3과 8, 4와 9는 각각 부부를 상징한다. 남매는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갈라져서 살고, 부부는 뿌리는 다르지만 합쳐져서 사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부부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내외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것을 상징하고, 각 부부는 서로 다른 부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므로 각기 제 배우자에 충실한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부부유별도」는 종래에 사용되어 온 부부유별과 남녀유별이란 용어의 함의를 분리하여 논의함으로써 부부와 남녀 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하려 한 특색 있는 논의이며 「부부유별도」가 남녀와 부부의 고전윤리규범을 설명하는 좋은 교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었다(정경주, 2002). 그뿐만 아니라 「부부유별도」를 통해서 부부와 형제의 인륜적인 도덕적 구별과 질서가 일정불변한 자연의 수리와 방위적 질서에 모범을 두고 있으며, 수의 방위를 인륜의 도덕적 실천의 문체와 관련시키고 있음이 주목되기도 하였으며(엄연석, 2003), 부부유별의 의미는 상호공경이나 내외를 의미하기 보다는 일단 부부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서로 상대를 다른 남녀로부터 엄정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되 특히 성적인 면에 있어서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곽신환, 2004).

본 연구는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이덕홍의 「부부유별도」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가족생활교육이라는 측면에 유의하여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부세계와 부부 간의 배타적 독점관계와 부부 간 상호작용의 두 차원이 올바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II.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과 오류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의 핵심적인 기본 틀인 오류를 점검하고 그 내적 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부부유별이 가족생활교육에서 가지는 위상을 오류이라는 전체적인 틀 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 오류를 중심으로 본 가족생활교육

오류는 『맹자』 「등문공상」에 나오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이르는,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자유친과 부부유별은 가족관계에 대한 도리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생활교

1) 『良齋先生文集卷之八』 「良齋先生年譜」. 十六年戊子(先生四十八歲)夏. 著夫婦有別圖.
2)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大抵有別之別. 有二義. 合天地生成之數. 而一夫一婦. 各共居一室. 更不亂於他人. 此一義也. 雖夫婦同居一室. 男外女內. 內外不相褻. 亦一義也.

육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맹자에 의하면 요임금이 설(契)을 사도로 삼아 백성들에게 오류를 가르친 것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따스하게 입으며 편안히 살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게 된다는 근심에 따른 것이다.³⁾ 가르침을 통해 인간됨을 형성해가려는 행위의 핵심은 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다는 것이 오류의 일차적인 의미이다.

맹자(孟子) 이후 주자(朱子)에 의해 오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저술된 『소학』은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이를 부연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교에서는 태교, 보모(保姆)와 사부(師傅)의 가르침, 학교와 군정(君政)의 가르침, 스승과 제자 간의 가르침을 세웠으며, 이곳에는 인간 교육의 핵심적인 기제가 망라되어 있다. 가르침의 시초이며 그 성과가 막대한 것으로 인식된 태교는 가족생활교육과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소학』의 명륜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조목과는 달리 부부유별의 해석에서 애매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조목에서는 관계와 그 관계 내부의 덕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무리가 없으나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분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부자 사이에 친함이 있다는 것과 군신 사이에 의리가 있다는 것, 장유 사이에 차서가 있다는 것과 봉우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에 비하여 부부 사이에 분별이 있다는 것은 해석이 쉽지 않은 표현이다. 부부 사이의 분별을 말한 것인지 부부와 부부가 아닌 남녀와의 분별을 말한 것인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자는 틀렸고 후자만이 옳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전자의 입장이 풍미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해될 소지가 있었다.

『소학』의 명륜편에서는 부부유별과 관련해서는 혼인의 예와 남녀의 분별, 버리고 취하는 의리를 밝혔으며 과부의 자식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덕홍은 어려서 『소학』을 받아 읽을 때부터 부부유별에 이르면 마음에 의혹이 일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의혹이 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이미 중매를 통하여 서로 이름을 알고 폐백을 받아 서로 친하게 되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 분별을 두텁게 한다⁴⁾고 하며, 이미 폐백을 들고 서로 뵈었으면 무슨 까닭으로 공경하여 분별을 밝힌다⁵⁾고 하는지, 이와 같은 경

우에 별(別)자는 무슨 의미인지, 이미 뉘을 가깝게 하고 분별을 두텁게 하였다고 하고는 또 일단 부부가 되면 종신토록 변치 않는다⁶⁾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2. 오류와 부부유별

이 절에서는 이덕홍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류에서의 부부유별의 위상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주자는 오류 중에서 부자와 형제의 관계만이 천륜인 친속이고 나머지 군신, 부부, 봉우는 타인이 합한 것으로 보았다. 부부는 천륜인 친속이 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군신은 천륜인 친속이 이를 의뢰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봉우는 천륜인 친속이 이를 의뢰하여 바름을 취한다⁷⁾고 하였다.

이덕홍은 당대의 유자들이 모두 부부유별이 부부간의 내외를 말한다는 설을 따르고 있을 때 홀로 두 가지 의미를 지적해낸 까닭을 『소학』의 본문과 『예기』 가운데서 근거를 찾았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절을 지키는 지어미가 있으며 동물에 있어서는 『시경』에 등장하는 관저(關雎)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경서와 사서에서도 근거가 있으며 특히 『하도』에 적용해보아도 그 상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는 별이 부부간의 내외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를 오류의 여타 항목과의 관련 하에 설명하고 있다. 분별이라는 것이 부부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부자·군신·형제·봉우 관계에서도 절실한 것이며, 비록 네 가지 관계에서 각기 상하와 선후의 분별이 있지만 나의 부자·군신·형제·봉우와 남의 부자·군신·형제·봉우가 구별되어야 인륜이 확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신하와 자식은 임금과 아버지를 분별하여 충효의 진실한 마음을 다할 수 없으므로 별은 단연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⁸⁾

3) 『小學』 「立敎」5. 孟子曰：人之有道也，飽食暖衣，逸居而無敎，則近於禽獸。聖人有憂之，使契爲司徒，敎以人倫，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4) 『小學』 「明倫」60. 曲禮曰：男女非有行媒，不相知名。非受幣，不交不親。故日月以告君，齊戒以告鬼神，爲酒食以召鄉黨僚友。以厚其別也。

5) 『小學』 「明倫」62. 執摯以相見，敬章別也。

6) 『小學』 「明倫」62. 禮記曰：夫昏禮，萬世之始也。取於異姓，所以附遠厚別也。幣必誠，辭無不腆，告之以直信。信事人也，信婦德也。一與之齊，終身不改。故夫死不嫁。

7) 『晦庵集卷八十一』 「跋黃仲本朋友說」。人之大倫其別有五，自昔聖賢皆以爲天之所敎，而非人之所能爲也。然以今考之，則惟父子兄弟爲天屬，而人以合者居其三焉，是則若有可疑者。然夫婦者天屬之所由以續者也，君臣者天屬之所賴以全者也，朋友者天屬之所賴以正者也。

8)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或問別字有二義則然矣。但近世諸儒。皆從夫外婦內之說。而子獨別生他義。何歟。曰。此說不但小學本文及禮記中出也。近取諸人而有貞節之婦。遠取諸物而有關雎之美。質之經史。亦皆有據。體於河圖。其象昭昭。況此別字。不獨於夫婦一節見之。父子君臣兄弟朋友。亦皆爲然。四者雖各有上下之別。先後之分。然彼之父子君臣。固異於吾之父子君臣。彼之兄弟朋友。亦豈同於吾之兄弟朋友。必如是而後人之類各有區別。而彝倫攸叙。庶不歸於禽獸之域矣。故先儒曰。理一而分

이덕홍은 『오륜변』에서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봉우유신의 부자·군신·부부·장유·봉우는 물(物), 즉 관계로, 친·의·별·서·신은 척(則), 즉 관계의 윤리로 보았으며, 물은 형이하의 기(器)로 척은 형이상(道)의 도(道)로 보았다. 오륜의 유(有)는 증민(蒸民) 시의 '사물이 있으면 그에 따른 법칙이 있다'에서의 유로써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공부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친·의·별·서·신이 오륜에 분속되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섯 가지 이치가 한 관계에 모두 구비되어 있다. 부자지간에도 친·의·별·서·신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군신지간에도 친·의·별·서·신이 구비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¹⁰⁾ 이러한 사고는 조선 후기에까지 이어져 이항로(1792~1868)의 경우도 부자지간을 비롯한 오륜의 모든 관계에 친·의·별·서·신이 있지만 각기 부자지간이 친을 위주로 하듯이 의·별·서·신을 위주로 할 뿐¹¹⁾이라고 하였다.

이덕홍의 주장에 대비하여 오륜을 오상(五常)에 배속시켜 보고자하는 논의는 다양한 주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채지홍(1683~1741)은 친·의·별·서·신을 인·의·예·지·신에 일괄적으로 배속시키는 것은 건강부회의 위험이 있다¹²⁾고 주장하였다. 윤형로(1709~1782)는 오륜이 인·의·

예·지·신에 분속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부유별의 경우에 속하는지 예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다¹³⁾고 하였다. 정약용(1762~1836)은 오륜 가운데 부자와 형제의 친속은 예로써 접하지 않지만 군신·부부·봉우의 관계는 모두 의리로써 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로써 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관계는 폐백을 들고 서로 만나 보아야 그 관계가 정립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¹⁴⁾ 곽종석(1846~1919)은 오륜이 오상 즉 인·의·예·지·신인데 그 중에 군신과 봉우만이 오륜의 신의에 배속되어 있으니 부자와 부부와 장유는 어디에 배속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지·예에 각각 배속될 수 있다¹⁵⁾고 보았다. 이는 윤휴(1617~1680)가 우서이륜지도(禹敍彝倫之圖)에서 오륜을 오상에 각각 배속하면서 하늘이 명한 본연의 성품이 인·의·예·지·신이고,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 서로의 절대적 관계가 부자·군신·부부·장유·봉우이며 인은 부자 사이에, 의는 군신 사이에, 예는 장유 사이에 각각 행해져야 하고 부부 사이에는 지로 구별이 되어야 하고, 봉우의 사킴에는 신이 주밀해야 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¹⁶⁾

3. 남녀유별과 부부유별

남녀유별은 성적 구별과 종족적 구별의 두 가지 의미층위를 갖는다고도 한다. 성적 구별과 종족적 구별의 중첩적 맥락을 고려해야 『예기』 「혼의」에서 말하는 남녀유별 이후에

殊。正謂此也。不然則臣子何以別我君父。而盡忠孝之誠乎。此愚所以爲斷然有兩義而無疑也。何敢創起新語。以誣群賢乎。

9) 『詩經』 「蒸民」.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10) 『良齋先生文集卷之七』 「五倫辨」.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蓋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所謂物也. 親義別序信. 所謂則也. 物即形而下之器也. 則即形而上之道也. 五品. 主物而言之. 五典. 主道而言之. 五倫. 自人而言. 明其有倫序而道在其中. 五教. 自君師而言. 教其有道理而倫在其中也. 五有即所謂有物有則之有. 言其固有之有. 非我做工夫而有之也. 按五教之中. 親義別序信五者之道. 雖各以所重者. 分屬五品之中. 而似不相通. 然五者之理. 本皆具於一倫之中. 如父子之間. 盡具親義別序信. 如君臣之間. 亦具親義別序信. 其餘皆然. 不可不察.

11) 『華西先生文集附錄卷之五』 「語錄」. 父子分上. 須有親有義有別有序有信. 特親爲之主耳. 君臣分上. 亦有親有義有別有序有信. 特義爲之主耳. 夫婦長幼朋友皆然.

12) 『鳳巖集卷之十一』 「讀學填補總辨」.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無非性中之所固有者. 而如欲以五典分配於五性. 則智屬夫婦. 終不襯貼. 是以朱子於中庸或問. 只言父子之仁君臣之義. 而夫婦長幼朋友則不言所屬. 此固有其意. 然天下無性外之物. 何獨此三者而不本於性乎. 竊觀先生答胡廣伸書. 以兄弟之愛與父子之親. 同謂之仁. 朋友之交與君臣之分. 同謂之義. 今若以五典一一分屬於五性. 則必未免牽合之病. 然則夫婦之別. 亦當與君臣朋友. 同謂之義. 而禮智自是包在於仁義之中者. 雖不別言. 亦無害於理否. 思與先

覺者一質焉。(明倫)

13) 『戒懼菴集卷之九』 「筭錄○中庸」.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 一也.] 五倫分屬於仁義禮智信. 甚分明. 而人或以夫婦有別. 屬之於智. 然有別. 即各夫其夫. 各婦其婦. 不相混雜. 似是發於禮之性也. 與智別是非之別. 似不同. 未知如何.

14) 『小學枝言』 「明倫」. 五倫之中. 其天屬之親. 不以禮接. 至若君臣夫婦朋友之倫. 皆以義而合. 以義而合者. 必以禮而接. 故不執摯以相見. 不成君臣. 不執摯以相見. 不成夫婦. 不執摯以相見. 不成朋友. 其義一也. 故士相見禮. 得與士冠禮士昏禮. 並列爲禮. 後世士相見之禮廢. 而所謂朋友. 皆塗交而市接. 故俏死忘生者衆. 而士君子之風俗日渝矣. 夫唯執友而後. 方爲五倫之朋友. 此其所以見父之執. 其禮自別也.

15) 『侏字先生文集卷之五十四』 「答金振玉癸卯」. 別紙 (小學疑義) 五倫之道. 即是五常. 而只於君臣朋友着信義字. 於父子夫婦長幼. 別着親別序三字. 抑有意義之可指歟. 且夫婦有別. 是男女之別是內外之別. 信義亦指用處言則親別序三字. 尤緊於仁智禮之名. 別是各夫其夫. 各婦其婦之謂.

16) 『白湖全書第35卷』 「圖說-禹敍彝倫之圖」. 天命之恒性有五, 仁也義也禮也智也信也; 生民之大道有五, 父子也君臣也夫婦也長幼也朋友也. 仁行於父子, 義行於君臣, 禮行於長幼, 智別乎夫婦之際, 信周於朋友之交.

비로소 부자유친 이하가 가능하다¹⁷⁾는 논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견해로 이성(異姓)과의 결합에서 여성을 남성 종족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모계 종족이 아닌 부계 종족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남녀유별 이후에 부자유친이 가능하다는 말의 뜻이라고 본 것이다(박례경, 2008). 그러나 『예기』 『혼의』를 분석해보면 남녀 사이에 분별이 있어야 부부 사이에 의리 혹은 도의가 있게 된다는 말은 『부부유별도』의 설명방식이 더욱 타당한 일차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부부유별도』¹⁸⁾에 의하면 남녀유별은 남자와 남자가 함께 어울리며 여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리어 남녀가 진실로 서로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양과 양이 서로 따르며 음과 음이 서로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비하여 부부유별은 지아버는 그 지어미가 아니면 따르지 않으며 지어미는 그 지아버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일양과 일음이 한 쪽에서 함께 살며 다시 다른 쪽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남녀는 각기 타인의 부부를 조심하고 피하여 매번 서로 피하며 길에서는 길을 달리하고 거처에서는 거처를 달리하는 것으로 남녀유별이 부부유별의 근거임을 밝혔다.

부부유별에 대한 이해를 크게 분류하면 부부간의 내외를 강조하는 불상압(不相狎)의 입장과 다른 부부나 다른 남녀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불상란(不相亂)의 입장, 그리고 두 가지 입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제삼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이덕홍은 불상란의 의미를 발견해낸 학자이지만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균형도 강조하는 입장이며 인용된 다른 학자들도 대부분 두 입장의 균형을 강조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불상압의 입장만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는 이덕홍의 지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부유별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선시대의 부부유별에 대한 이해를 정리한 <표 1>에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덕홍은 '금수가 어머니가 있는 것만 알고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한 구절을 읽고 부부유별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획득했다고 고백하면서¹⁹⁾ 하사신(何士信)이 『소학집성』에서 부부유별을 서

로 예의 없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 이후에는 사군자들이 휩쓸리어 이를 따르고 다시는 그 행간에 '정해진 배우가 있어 서로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애통해하고 있다.²⁰⁾ 하사신의 『소학집성』 이후로 부부유별의 해석이 '내외지간에 서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로 기울고 '정해진 짝이 있어 서로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견해는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호(1648~1736)는 『맹자』에 나오는 부부유별에 대하여 세인들은 내외유별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이 만물 가운데서 귀하고 금수와 다른 것은 부부배필의 분별이 엄하여 각기 그 지아버를 지아버로 알고 그 지어미를 지어미로 알아 서로 어지럽히지 않는 불상독란(不相瀆亂)으로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불상란우(不相亂偶)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내외유별(內外有別)은 도를 닦는 군자에게나 다그칠 수 있는 것이지 보통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부부유별은 불상란우와 내외유별 중 하나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²¹⁾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손만전이 고금의 서적들을 폭넓게 조사해본 결과 부부유별을 내외유별로 이해한 경우가 많은 반면 '각기 지아버를 지아버로 알고 지어미를 지어미로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게 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손만전의 반론에 대하여 정호는 성인이 가르침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사람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의리에 따라 그 도를 세우며, 성왕이 다스릴 때에는 만민이 각기 그 지아버를 지아버로 하고 그 지어미를

至於禽獸知有母而不知有父。無別故也一語。始覺其別字義也。蓋禽獸之於夫婦。無定偶之別。而相瀆相亂。故只知其母之有乳。而反或悖之。不知某是其父而視之尋常。

20)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河圖及經傳古人行事之跡。皆不越是義。伊洛傳授之說。亦不過此道。而獨有何氏士信著小學集成。以不相狎之義。主張爲說。厥後士君子以厭常喜新之心。靡然從之。不復知其間有定偶不相亂之義。甚可痛惜。

21) 『丈巖先生集卷之十一』 『讀書漫錄』. 孟子所敍五倫中。夫婦有別一條。世人皆解以內外有別之義。蓋本乎易家人爻。男正位乎外。女正位于內之辭而釋之也。余意則凡人之貴於萬物。異於禽獸者。以其嚴夫婦配匹之分。各夫其夫。各婦其婦。不相瀆亂之謂也。至於內外有別。乃其刑家日用節目間事。只可責於修道之君子。而不可責於愚夫愚婦也。孫生萬全疑之曰。博考古今書。多以內外有別言之。而終無以各夫其夫。各婦其婦爲言者。余曰。聖人設教。必就其人人當行之義而立其道也。聖王爲治。使萬民各夫其夫各婦其婦。則雖愚夫愚婦。可以能至於男外女內。而如必以內外有別。責之於愚夫愚婦。則堯舜其猶病諸。李生義植。則頗以余解爲是矣。其後見朱子釋關雎章曰。雎。水鳥名。今江淮間有之。生有定偶。不相亂偶。常竝遊而不相狎。又曰。淮人說雎鳩。常是雌雄兩兩相隨。不相失。然亦不曾相近。所謂摯而有別。是也。以此言之。所謂夫婦有別。卽不相亂偶。內外有別。兩義備矣。不可以偏言明矣。

17) 『禮記』 『昏義』. 男女有別, 而后夫婦有義; 夫婦有義, 而后父子有親; 父子有親, 而后君臣有正. 故曰: 昏禮者禮之本也.

18)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或問夫婦有別. 男女有別. 一義否. 曰. 男女有別. 所以夫婦有別也. 蓋男女有別. 男男同處. 女女同處. 男女固不相同之謂. 如陽與陽相從. 陰與陰相從者也. 夫婦有別. 夫非其婦則不從. 婦非其夫則不從之謂. 如一陽一陰. 共處一方. 更不易他方者也. 故凡男女各嫌於他人之夫婦. 每每相避. 而於路則異路. 於居則異居. 是也.

19)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偶讀小學章句.

<표 1> 부부유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이름	호	시기	남녀지별	내외지별
이덕홍	간재	1541~1596	各夫其夫各婦其婦分居別處不相嫌疑	
			合於此而別於彼	
			一夫一婦各共居一室更不亂於他人	夫婦同居一室男外女內內外不相褻
			夫婦有別: 夫非其婦則不從婦非其夫則不從	男女有別: 男男同處女女同處男女固不相同
			如陽與陽相從陰與陰相從者也	如一陽一陰共處一方更不易他方者也
			大別: 舉天下夫婦各有配偶不相亂	小別: 就一人夫婦夫外婦內
				夫外婦內之說
				一夫一婦不相狎而夫居外婦居內
			禽獸知有母而不知有父無別故也	
			生有定偶而不相亂	偶相竝遊而不相狎
人人各定有常配而某人之夫婦與某人之夫婦有別而不相亂也	則夫與婦雖有交親之道至於居室之際若不莊以蒞之則恐或流於過而不中其節淫於褻而不以其道故必設戒以嚴內外之別也			
公父文伯之母: 季康子	武帝: 戾太子			
定偶不相亂	竝遊不相狎			
外以別於人之夫婦	內以別於吾之夫婦			
不嫌於人之夫婦	不瀆於吾之夫婦			
정호	장암	1648~1736	各夫其夫各婦其婦不相瀆亂	內外有別
			不相亂偶	內外有別
			生有定偶各夫其夫各婦其婦	正內正外各有攸守
			禮記郊特牲: 男女有別然後父子親	易家人: 男正位乎外女正位于內
손만전			各夫其夫各婦其婦	內外有別
임영	창계	1649~1696	夫有定婦婦有定夫各有分別不相紊亂	夫婦之間禮敬相接不相混狎
이익	성호	1681~1763	夫各有婦婦各有夫不相混亂	夫婦之間禮敬相接不相混狎
한원진	남당	1682~1751	各夫其夫各妻其妻不相混雜	相敬如賓不相褻狎
채지홍	봉암	1683~1741	各夫其夫各妻其妻	男女居室必辨內外
송능상	운평	1710~1758	與他人有別	分別
				相狎, 相褻, 情摯
			以甲之夫與乙之婦乙之夫與甲之婦爲有別	
정약용	다산	1762~1836	各配其匹不相瀆亂	嚴內外之分
			各配其配	
			各夫其夫各婦其婦不相混亂	一以男位于外女位于內不相褻狎
			各配其耦而不相侵越	
이항로	화서	1792~1868	不亂耦	不相狎
유중교	성재	1832~1893	教民嫁娶而夫婦之倫定以姓相承而父子之道明	夫婦常情之所易狎狎必至於亂亂則五倫從而壞焉故斷之以有別
곽종석	면우	1846~1919	各夫其夫各婦其婦	
			夫有定婦婦有定夫	辨內外, 嚴授受, 不通衣裳, 不共溷浴
			男女之別	夫婦之別

지어미로 하므로 비록 평범한 부부일지라도 남녀의 내외에 이를 수 있지만 반드시 내외유별을 평범한 부부에게 요구한다면 요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자의 『시경』 관저장 해석을 보면 날 때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 서로 짝이 어지럽지 않으며 항상 더불어 노닐면서도 서로 친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항상 암수가 짝을 이뤄 서로 따르고 서로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가까워지지도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정이 도타우면서도 분별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부부유별이라는 것이 불상란우와 내외유별의 두 가지 의미가 갖춰져 있어 한 가지로만 말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임영(1649~1696)은 부부유별의 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는 정해진 부인이 있고 부인에게는 정해진 남편이 있어서 각기 분별이 있고 서로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는 예경으로 서로 접하고 서로 어지럽게 친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오류에 부부유별을 제시한 의도에 근본하여 생각해 보면 앞의 설을 주로 하는 듯하나 반드시 뒤의 설도 아울러 포함해야만 그 뜻이 완전해진다고 보았다. 특히 『소학』의 ‘참으로 부원후별(附遠厚別)에 조심조심한다’는 뜻을 보면 부부가 서로 친한 경우에도 내외의 분별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것이 그 한 예라는 지적은 타당이라고 할 수 있겠다.²²⁾ 부부간의 내외만을 중시하다 보면 부부유별의 다른 한 축은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부간의 정이 쇠하고 외부적인 관계에서 정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익(1681~1763)은 부부유별의 별을 남편은 각자 아내를 두고 아내는 각자 남편을 두어 서로 혼란스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소학』의 ‘남녀 간에 분별이 있는 연후에 부자가 친해진다는 것을 근거로 부부간에 분별이 있다는 것이 부부간에 서로 친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위로는 임금에게 고하고 사적으로는 조상에 고하고 주위에는 향당의 동료와 친우에게 고하는 것과 이성에게 장가드는 것 모두가 분별을 두터이 하기 위해서이므로 친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이익은 고악부의 맥상상(陌上桑)²³⁾에서

‘사군은 아내가 있으며 나부는 남편이 있습니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각기 그 지아비와 지어미를 둘을 강조하여 부부유별에서 별의 의미를 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²⁴⁾

한원진(1682~1751)이 이종오(李宗五)와 결혼한 여동생의 부탁으로 성현의 말에서 부녀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11장으로 엮은 『한씨부훈』에서 부부유별은 각기 지아비를 지아비로 알고 지어미를 지어미로 알아서 서로 혼잡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하여 상대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부부유별을 포함한 오류는 사람이 사람 된 도리이며 이를 떠나서 사람의 길을 찾을 도리가 없다고 확인하였다.²⁵⁾ 즉, 부부유별에서 ‘불상혼잡(不相混雜)’과 ‘불상설업’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채지홍(1683~1741)은 별이라는 글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그 하나는 각기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알고 그 지어미를 지어미로 아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남녀가 실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내외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전자는 각기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삼고 각기 그 지어미를 지어미로 삼는 것으로 혼례에 술과 밥으로 향당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알려서 그 분별을 두텁게 하는 것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후자는 남녀가 실내에 있을 때 반드시 내외를 구분하는 것으로 『가례』에서 측간을 공유하지 않으며 욕실을 공유하지 않고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과 같은 부류를 말한다. 위의 설을 따르면 백성들의 떳떳함이 정해지고 음직한 습속이 교정되는 반면 아래의 설을 따르면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되며 예경의 가르침이

시하고 이를 거절한 고사가 전한다.

24) 『小學疾書』 「明倫」明夫婦之別. 孟子曰: 夫婦有別. 別者, 謂夫各有婦婦各有夫, 不相混亂之也. 蓋上古之時, 男女無別殆近鸚猩, 人倫亂矣. 故聖人有憂之, 教之有別, 夫婦之倫未定, 則父子之親未明. 故下章曰: 男女有別然後父子親, 父子親然後義生, 無別無義, 禽獸之道也. 然則有別者, 非謂夫婦之不相昵狎, 明矣. 夫上告於君, 私告於祖, 旁告於鄉黨僚友, 皆所以厚別也. 取於異姓, 亦所以厚別也. 於此, 雖欲看作不昵之意, 不成說矣. 古詩云: 使君自有婦, 羅敷自有夫. 是則所謂有別也.

25) 『南塘先生文集卷之二十六』 「韓氏婦訓并序」. 統說章第一天生斯民. 其倫有五. 人未有能外此而爲人者也. 一曰父子有親. 父子之間. 親愛之而已矣. 二曰君臣有義. 君臣之際. 去就從違. 一於義而已矣. 三曰夫婦有別. 謂各夫其夫. 各妻其妻. 不相混雜. 而亦必相敬如賓. 不相褻狎也. 四曰長幼有序. 謂弟不敢耦於兄. 少不敢加於長. 順而有序也. 五曰朋友有信. 謂交際之間. 一以誠信而不相欺負也. 在家則主僕爲君臣之義. 而在婦人則敬接賓客. 使其家長無愧於交際. 是亦爲朋友之信者也. 此其無適而非五者. 而人不可以離此而爲道也. 蓋人之所以異於禽獸者. 以其禽獸無此而人獨有此也. 人而於此五者. 一有悖焉. 則是雖具人之形. 即便與禽獸無別矣. 然則人與禽獸之間. 將孰從而孰違耶.

22) 『滄溪先生集卷之二十二』 「讀書節錄」小學. 明夫婦之別. 別字之義. 或謂夫有定婦. 婦有定夫. 各有分別. 不相紊亂之義. 或謂夫婦之間. 禮敬相接. 不相混狎之義. 竊意本其立名之意. 似主於前說而要必並包後說而後. 其義方無不盡也. 觀此書所載. 固兢兢於附遠厚別之義. 而雖夫婦得相親者. 內外之辨. 亦未嘗不截然. 則是一證也.

23) 맥상상은 악부(樂府) 곡명(曲名)이다. ‘使君自有婦羅敷自有夫’ 진씨(秦氏)의 딸이요, 왕인(王仁)의 아내인 나부(羅敷)의 미모를 탐내어 조왕(趙王)이 그녀를 빼앗으려 했으나 그녀가 맥상상(陌上桑)의 노래를 지어 자기 뜻을 표

확립된다. 이들은 마땅히 아울러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교화와 관계되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²⁶⁾

그는 또 형처(刑妻)에서는 부부 사이가 바르게 된 연후에 부자가 친해짐을, 혼례(昏禮)에서는 부부 사이에 분별이 있는 연후에 부자가 친해짐을 각각 말하였다. 전자에 대해서 부부는 인륜으로 시작되는 관계이며 가정을 바로잡는 근본이다. 부부가 바르게 된 연후에 부자가 친하게 되며 부자가 친하게 된 연후에 예가 생겨나고 의가 이루어져 만물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안방 이부자리에서 단서가 만들어져서 부모에게 순응하며 천지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니 부부가 서로 가깝하다고 소홀하게 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부가 바르게 되면 부자가 친해진다고 한 것이다. 이는 부부의 불상압(不相狎)을 강조한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예가 있기 때문이며 예는 혼인에서 가장 중요하다. 혼인의 예가 정해진 연후에 부부가 분별되고 부부가 분별된 연후에 부자가 친해진다. 대개 장차 두 집안의 우호를 합하여 만세의 후사를 전하니 그 예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는 부부의 불상란(不相亂)을 강조한 것이다.²⁷⁾ 채지홍의 이러한 논의는 부부유별의 불상압의 측면과 불상란의 측면을 모두 강조하는 대표적인 논의로 볼 수 있다.

송능상(1710~1758)은 『맹자』의 오류는 그 문례를 살펴볼 때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봉우유신이 모두 서로 간에 친·의·서·신이 있다는 구조이며 부부유별도 예외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부부 사이에 분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지 다른 사람과 분별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별은 오류의 여타 네 항목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유별을 각기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알고 그 지어미를 지어미로 알아 서로 혼잡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산짐승이나 들짐승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일이 너무 쉽고 그 의리가 지나치게 조잡하여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송능상은 주자의 말을 내세웠다. 하나는 부부 사이에 분별이 있으면 무슨 수로 둘이 서로 친해지느냐는 제자의 의문에 부부 사이에 분별이 없으면 친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함부로 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무제가 성색(聲色)에 탐닉하여 후궁에서 방탕하게 놀다가 부자지간이 친하지 않게 되어 결국은 여태자(戾太子)의 변고²⁸⁾를 당한 것이 부부간에 분별이 없으면 부자지간이 친하지 않게 된다는 한가지 예라고 한다.²⁹⁾

그는 또한 옛날부터 경전 가운데서 부부의 별을 이야기한 곳은 모두 하나의 분별이라는 뜻일 뿐이며 다시 어렵고 심오하며 거슬리어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말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문장에서 매번 상압(相狎), 상설(相襲), 정지(情摯) 등의 문자와 대조가 되는 것으로 자세히 조사하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독 진씨(陳氏)만이 근본이 하나가 되어 부자 사이에 친함이 있다는 논의와 금수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설만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은 부부가 분별을 두텁게 하지 못하면 혼인의 예가 손상되고 사사로운 정욕이 크게 되어 분별없이 서로 친하게 사귀고 내외의 구분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다른 남녀와도 분별이 없어져서 음란함이 넘치고 족속이 어지러워져서 기를 받는 것이 불순해지니 사람이 근본이 둘이 되어 금수와 가깝게 된다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 한 차원 내려가서 미루어 말한 것으로 근세의 여러 선생들이 의론한 갑의 지아비와 을의 지어미, 을의 지아비와 갑의 지어미 사이의 분별이 있는 것이라는 것과는 동류가 아니라고 하였다.³⁰⁾ 이로써 송능상은 부부유별에서 불상란의

26) 『鳳巖集卷之十一』 「讀學墳補總辨」. 盖夫婦以別爲其道。而別字有二義。其一謂各夫其夫。各妻其妻。如昏禮爲酒食以告鄉黨僚友。所以厚其別之類。比則雌鳩之生。有定偶而不相亂是也。其一謂男女居室。必辨內外。如家禮不共廁。不共浴室。不親授受之類。比則雌鳩之立。必隔丈而不相狎是也。由上之說。則民彝定而淫僻之俗矯矣。由下之說。則家道正而禮敬之教立矣。所當并行而不相悖者也。關係風化。顧不重歟。(刑妻)

27) 『鳳巖集卷之十一』 「讀學墳補總辨」. 夫婦。人倫之所由始而正家之本也。夫婦正然後。父子親。父子親然後。禮生義作而萬物安。故君子之道。造端於閨門祗席之間。以至於父母順而天地察。其可以卑近而忽之哉。(刑妻)人之所以異於禽獸者。以其有禮也。而禮莫重於昏姻。昏姻之禮定然後夫婦別。夫婦別然後父子親。盖將以合二姓之好。傳萬世之嗣也。其爲禮顧不重歟。(昏)

28) 여태자는 한무제(漢武帝)의 태자인 유거(劉據)이며, 여태자의 변고란 여태자가 한무제의 신하인 강충(江充)에게 모함을 당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군사를 일으켜서 강충을 죽이고 결국 반역자로 몰려 싸움에 져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29) 『雲坪先生文集卷之三』 「上尹屏溪」甲寅十二月。夫婦有別之訓。雖奉盛誨。而疑團轉甚。深懼一字之不明而害亦有難言者。茲敢暴露。以俟砭訂。幸願執事者少加察焉。盖五品之教。肇見於典謨。而孟子之言。尤極明備。就其中義例停均。不容有少參差。故父子有親。謂其自相有親也。君臣有義。謂其自相有義也。長幼朋友之有序有信。亦皆如是。至於夫婦。何獨不然。由是朱夫子曰。夫婦無別則相瀆。瀆便相離了。又曰武帝溺於聲色。遊宴後宮。父子不親。遂致戾太子之變。此亦夫婦無別而父子不親之一證也。可謂發明得盡矣。奈何舍此。而必釋爲與他人有別。與他人有別。即是男女有別也。男女與夫婦。其指果同乎。抑所謂各夫其夫。各婦其婦。而不相混雜者。山禽野獸。亦有能焉。其事至易。其義至粗。唐虞至治之世聖君賢師。必爲之深憂而首先設教者。何哉。卒賜一言。以發蒙蔽。千萬之望。

30) 『雲坪先生文集卷之三』 「上尹屏溪」乙卯十一月。大抵從古經傳之中。有言夫婦之別者。皆是一箇分別之義已

입장보다는 불상압의 입장이 일차적이며 근본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일반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1762~1836)은 부부유별은 각기 그 배필과 짝하며 서로 더럽히거나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뜻이며 당대의 사람들이 내외지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부부유별로 이해하는 것은 틀렸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³¹⁾ 또한 이와 동일한 이해의 선상에서 남녀 간에 분별이 있는 연후에 부자가 친해 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마씨의 설³²⁾은 모호하며 불 명확하여 진씨의 설³³⁾이 낫다고 하였다. 진씨가 금수가 어미가 있는 것만을 알고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경의 본지에 합당하다³⁴⁾고 보는 관점이다. 이와같이 정약용은 불상압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불상란의 입장을 무시하는 당대의 세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내린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즉, 후사를 정하는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서얼이나 지차 아들에게 대한 정에 이끌리게 되면 부-장자 중심의 부자간 친함이 손상될 것이고, 관에서 창기를 금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부부간의 분별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부부가 분별이 있다는 것은 각자가 그 짝을

배필로 삼고 서로 남의 배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부가 분별이 있는 뒤에 부자가 친하게 된다'. 그러나 부부간에 분별은 없고 다만 서로 공경하여 손님처럼 대하기만 한다면 이 또한 부자의 친함에 무슨 도움이 있겠냐고 반문한다. 정약용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경전 가운데에 부부유별에 대한 증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한번 모아 볼 것을 명하여³⁵⁾ 자식의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편지에서 다산이 상경여빈(相敬如賓)과 부자유친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은 불상압의 입장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조와의 경연의 자리에서 유별의 두 가지 의미를 남자는 밖에 여자는 안에 자리하여 서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과 각기 지아비를 지아비로 여기고 지어미를 지어미로 여겨 서로 혼란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³⁶⁾ 불상란의 입장만을 옹호한다고는 볼 수 없어 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항로(1792~1868)는 부부유별의 별이 불상압(不相狎)의 뜻인지 불란우(不亂耦)의 뜻인지 물은 제자에게 불상압이 주가 되지만 불란우도 그 가운데 있으며 두 가지 뜻은 하나의 이치라고 하였다.³⁷⁾ 이항로의 입장은 불상압의 입장을 더 옹호하지만 불상압을 통해서 불상란을 확보하는 둘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증교(1832~1893)는 남녀유별 연후에 부자가 친하다는 말을 부부가 정해진 짝이 있는 연후에 사람이 각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여 친해야 할 이와 친하게 지내는 은혜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는 『소학집해』의 마씨의 설은 자못 융통성이 없다고 하였다.³⁸⁾ 이로써 유증교는 불상압의 의미보다는 불상란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矣。更無許多艱深牴牾不可領會底說話。故其文每與相狎相褻情摯等字爲對。可細考也。獨陳氏之一本而父子親及禽獸不知有父之說。似若有疑者。然其實謂夫婦不能厚別則婚姻之禮廢。情欲之私勝。妄相交親。無內外之分。而勢將與他男女亦無分別。淫泆亂族。受氣不純。人有二本而去禽獸不遠云爾。此乃轉下一層推說之言。非如近世諸先生之論直以甲之夫與乙之婦。乙之夫與甲之婦爲有別者類也。(各夫其夫各婦其婦。而不相混雜者。卽此義也。)

- 31) 『小學枝言』 「立教」. 孟子曰契爲司徒節○夫婦有別者。各配其匹。不相瀆亂也。禮曰娶于異姓。所以附遠厚別也。(郊特牲)禮曰男女非有行媒。不相知名。非受幣。不交不親。故日月以告君。齊戒以告鬼神。爲酒食以召鄉黨僚友。以厚其別也。(曲禮文)禮曰執贄以相見。敬章別也。(疏云壻親迎入門而後。與婦相見。以明夫婦有別。)男女有別然後父子親。父子親然後養生。養生然後禮作。禮作然後萬物安。無別無義。禽獸之道也。(郊特牲)又曰章民之別。使民無嫌。○詩傳稱睢鳩摯而有別。亦謂其乘居而匹處。各有定配也。禮曰昏姻之禮。所以分男女之別也。○今人以嚴內外之分。爲夫婦有別。誤。
- 32) 『小學』 「明倫」62 註. 馬氏曰: 父子出於天性, 而曰男女有別然後父子親, 何也? 蓋男女無別於內, 則夫婦之道喪, 而淫僻之罪多, 雖父子之親, 亦不可得而親之也。男女有別然後, 父子有相親之恩, 父子有相親之恩, 則必有相親之義, 故義生焉。
- 33) 『小學』 「明倫」62 註. 陳氏曰: 禽獸知有母, 而不知有父。無別故也。
- 34) 『小學枝言』 「明倫」. 男女有別然後父子親。馬氏說糊塗不明。陳氏說爲長。陳氏曰禽獸知有母而不知有父。無別故也。斯經旨也。今娼妓之子。率多謂他人父者。以無定配也。各配其配。非所謂有別乎。

- 35) 『與猶堂全書』 「示兩兒」. 人有恒言曰五倫五倫。然朋黨之禍不息。而逆獄屢起。則君臣之義墮矣。立後之義不明。而支庶率情。則父子之親夷矣。娼妓不禁。而官長胥迷。則夫婦之別亂矣。耆老不養。而生貴多驕。則長幼之序壞矣。科舉爲主。而道義不講。則朋友之信乖矣。是五者之害。聖人之所必變也。夫婦有別者。各配其耦而不相侵越也。故曰夫婦別而後父子親。娼嫖之子。不知其父也。若云敬。相待如賓。於父子親何與。經典中有別之證。不可勝數。汝其蒐之。
- 36) 『詩經講義』 關雎。且有別。本有二義。一以男位于外。女位于內。不相褻狎。爲有別。一以各夫其夫。各婦其婦。不相混亂。爲有別。今集傳兼言之。
- 37) 『華西先生文集附錄卷之五』 「語錄」. 問。夫婦有別。別是不相狎之意。是不亂耦之意。曰。不相狎爲主。不亂耦亦在其中。兩箇義直是一理。
- 38) 『省齋先生文集卷之二十三』 「小學說」. 男女有別然後父子親。言夫婦有定耦然後。人各父其父子其子。而親親之恩生也。集解馬氏說。殆迂緩矣。

곽중석(1846~1919)은 부부유별이 남녀지별을 가리키는지 내외지별을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각기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알고 그 지어미를 지어미로 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남녀지별로 해석해야 한다³⁹⁾고 보았다. 그러나 송우약(宋羽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남녀지별과 부부지별이 의미상 상통한다고 보았다. 지아비에게 정해진 지어미가 있고 지어미에게 정해진 지아비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분별의 도리이며 이로 인하여 내외를 분별하고, 주고받는 것을 엄격하게 하며, 의상을 함께 쓰지 않으며, 목욕을 함께 하지 않는 등의 허다한 분별의 절도를 두게 되는 것이지 따로 두 가지 이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직 그 분별로 인해서 부원후별(附遠厚別)의 일이 있는 것은 모두 자연법칙의 당연이다. 하나는 천연이고 하나는 인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⁴⁰⁾ 곽중석은 불상란의 입장과 불상압의 입장을 연속성상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역시 남녀지별의 불상란이 우선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부유별에서 남녀지별의 불상압의 의미를 더 강조할 것인지, 내외지별의 불상란의 의미를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식자들은 불상란의 의미를 간취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불상압의 의미를 간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불상압의 의미를 버리지 않고 둘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III. 가족생활교육과 부부유별

1. 조선시대 가족생활의 특징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은 주자의 『소학』과 『가례』뿐만 아니라 15세기 소혜왕후 한씨의 『내훈』, 18세기 이덕무의 『사소절』, 19세기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 등을 통해서도 그

39) 『侂宇先生文集卷之五十四』 『答金振玉』癸卯. 五倫之道。卽是五常。而只於君臣朋友着信義字。於父子夫婦長幼。別着親別序三字。抑有意義之可指歟。且夫婦有別。是男女之別是內外之別。信義亦指用處言則親別序三字。尤緊於仁智禮之名。別是各夫其夫。各婦其婦之謂。

40) 『侂宇先生文集卷之五十七』 『答宋羽若』辛亥. 直夫見顧。尊書又辱。新年得吉祥。更有加於是者耶。且審聯床起止崇祐。稍慰此世驚戀。所示云云。足見伊來不廢講明之實。尤可仰也。但以鄙意揆之。男女之別。夫婦之別。恐只是一串意。惟其夫有定婦。婦有定夫。是大分別底道理。故因此而有辨內外嚴授受不通衣裳不共浴浴等許多分別底節度。非有二致也。惟其分別。故有遠別之事。皆是天則之當然。則亦不可曰此是天做底。彼是人做底。幸更諒如何。直夫已說得此意分明。鍾不能別有見耳。鄙狀無足說。知欲月內一枉。預切欣企。伊時須袖却明史全部以來。如何如何。

흐름을 짚어볼 수 있다(김숙자, 1989).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을 고찰할 때 그 대상은 주로 남성 보다는 여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교육이라고 할 분야는 많이 있어도 남편교육이라고 할 만한 분야는 그 존재를 애써 찾아야 할 정도로 미약하다.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고 아내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육은 넘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강(三綱)이라는 시각을 도입한다면 임금과 아버지와 남편은 경(經)이 되고 위(緯)에 해당하는 것은 신하와 자식과 아내가 된다. 군신관계에서는 임금과 신하 각각에 대한 교육이 모두 철저한 편이다. 그러나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에서는 아내교육에 비하여 남편교육이 자녀교육에 비하여 부모교육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아내교육에서 아내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절목들이 존재하는 데 비해 남편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세세한 절목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 부족한 측면이 많기는 하나 조선시대 남편교육은 부자유친과 부부유별을 중심으로 한 오륜과 삼강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풍석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임원경제지』에 와서야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정리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부족하나마 가족생활교육의 일단을 엿보기 위해서는 부부유별을 통해서 부자유친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부유별도』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외를 엄격히 하는 것이 부부유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의식,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으로서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될 때, 남편교육이 남성교육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교육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은 조선시대 남편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다. 아버지 역할의 강조는 태교 및 부성태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도 드러나며 『태교신기』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임원경제지』 등에도 그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다. 주자는 일상생활의 규제를 위해서 『의례경전통해』를 중시하였다. 이곳에서 임신 중에는 느끼는 바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신부에게 느낌이 일어나면 그 자녀는 형태와 소리를 닮게 되므로 임신부가 이를 조심하면 그 자녀는 모양새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하였다.⁴¹⁾

유교문화권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다고 했을 때 가장 전형적인 '다움'은 엄부자모(嚴父慈母)로 표현된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자애롭다는 것으로

41) 『儀禮經傳通解卷三』 『家禮』內則. 妊子者, 寢不側, 坐不邊, 立不蹕, 不食邪味, 割不正不食, 席不正不坐, 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夜則令瞽誦詩道正事. 右胎教. 傳曰: 妊子之時, 必謹所感. 心感於物, 則其子形音肖之. 故妊者能謹於此, 則生子形容端正才識必過人矣. 此之謂胎教.

이러한 부모 역할의 차이는 가족생활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시대적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하홍도(河弘度, 1593~1666)가 독례잡지(讀禮雜識)에서 부부지도(夫婦之道) 중에서 남편의 도는 몸을 삼가서 그 지어미를 이끄는 데에 있고 아내의 도는 몸을 삼가서 그 지아비를 받드는 것에 있다⁴²⁾고 본 것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는 몸을 삼간다는 동일한 행동기준을 전제하면서도 부부간의 위계적 관계를 강제하는 당대의 부부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해석과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 교육이 전제하는 남녀역할의 차이는 일단 논외로 하고, 현대 교육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행동기준인 몸을 삼가는 “경신(敬身)”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지만 수신(修身)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다.

부부유별을 통한 남편됨과 아내됨의 확립과 효와 부자유친을 통한 자식됨과 부모됨의 확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의 특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됴됨이의 확립은 일회성 교육이나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해결 될 수 없는 측면이 크므로 항상 조기교육과 반복학습 및 의례의 실행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과정 즉 경신과 수신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조선은 철학사와 교육사의 양 측면에서 모두 도설(圖說)과 도해(圖解)에 능하고 행실도(行實圖)와 그림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학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부유별도』와 그 해설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이덕홍의 접근 방식은 지극히 조선적인 것이며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한 측면에서는 지극히 이단적이지만 둘의 중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부유별도와 가족생활교육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는 아버지 지위의 확보는 부부관계의 확립을 전제로 함을 강조한다. 내외를 엄하게 하는 것으로 부자유친을 확보한다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따르기에 그의 고민은 깊었고 결국은 부부유별의 이의(二義)를 잘 운용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요체임을 직시하기에 이른다.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것은 부자관계를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부부유별도』는 부자관계에서의 친함의 확보가 내외를 엄하게 하는 것으로는 확보될 수 없음을 조선 최초로 강조하여 별에 대한 이해를 부부간의 윤리 덕목에서 부자를 이어주는 윤리덕목으로 진전시켰다. 동시에 부부관계의 양상이 부자관계의 양상과 밀접하게 연계

됨을 강조하였다.

『부부유별도』에서는 부부유은(夫婦有恩)⁴³⁾이나 부부유애(夫婦有愛)⁴⁴⁾의 자연(自然),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의 측면을 긍정하면서도 부내부외(婦內夫外), 지이유별(摯而有別)의 당연(當然), 즉 인간이라면 마땅히 어떠한 해야 한다는 측면도 강조하였다. 남매는 한 뿌리에서 나서 따로 살지만 부부는 다른 집안에서 나서 서로 합하는 이치가 있다. 부부는 소원한 사이에서 출발했지만 합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부부는 비록 서로 사귀며 친한 도리가 있지만 일상을 같이 하면서 지나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시열의 지적대로 경계가 지나치면 도리어 부부간의 은혜나 사랑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⁴⁵⁾ 그런 점에서 때나 상황에 적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가 적절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부부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부 사이에 분별을 두어야 한다면 어떻게 서로 친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 대하여 주자는 부부기간에 분별을 두지 않으면 서로 함부로 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어긋나게 된다고 답하였다.⁴⁶⁾ 이러한 해석은 현대적인 이해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를 정인재(1994)는 대개 부부의 사랑은 점유욕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심하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과대하여 줄이 끊어지기 쉬운데, 만일 존경을 거기다 더하면 소유욕과 병존하여 조정하기 쉽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를 지지해준다

이덕홍은 지아비와 지어미가 비록 서로 친한 도리가 있다고 하지만 실내에 있을 때는 서로 신중하지 않으면 지나침으로 흘러 예의없이 함부로 대하게 되어 그 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계를 두어 안과 밖의 분별을 엄히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부부간에는 정이 도타우면서도 분별이

42) 『謙齋先生文集卷之十』 『讀禮雜識』 笱禮輯說. 眞氏曰. 夫之道. 在敬身以帥其婦. 婦之道. 在敬身以承其夫. 故父之醮子曰. 勉帥以敬. 親之送女曰. 戒之敬之. 夫婦之道. 盡於此矣.

43) 『磻溪隨錄卷之十一』 『教選攷說』 後賢所論述. ○朱子漳州榜諭靈先生陳公勸諭曰. 爲吾民者. 父義(能正其家.) 母慈. 兄友(能養其弟.) 弟敬(能敬其兄.) 子孝.(能事父母.) 夫婦有恩.(貧窮相守爲恩. 若棄妻不養. 夫喪改嫁. 皆是無恩也.) 男女有別.(男有婦女有夫. 分別不亂.) 子弟有學.(能知禮義廉恥.) 鄉閭有禮.(歲時寒暄. 皆以恩意. 往來燕飲. 序老少坐立拜起.) 貧窮患難. 親戚相救.(借貸財穀.) 昏姻死喪. 隣保相助. 無墮農業. 無作盜賊. 無學賭博. 無好爭訟. 無以惡凌善. 無以富吞貧. 行者遜路.(少避長賤避貴. 輕避重去避來.) 耕者遜畔.(地有畔. 不相爭奪.) 班白者不負戴於道路.(子弟負重執役. 不令老者擔擊.) 則爲禮義之俗矣.(○已上陳公仙居縣諭俗文. 朱子知漳州. 取以榜示. 仍爲教戒如左.)

44) 馮友蘭(1992) 中國哲學史. 儒者論夫婦之關係時, 但言夫婦有別, 從未言夫婦有愛也.

45) 『宋子大全拾遺卷之九』 『經筵講義』. 至摯而有別. 曰. 徒別而不摯. 則夫婦情疏. 摯字別字. 有相救之義矣.

46) 『孟子集註大全卷五』 『滕文公章句上』. 問: 夫婦有別, 如何相親? 曰: 夫婦無別則相瀆, 瀆便相離了.

47)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由後一說. 則夫

있어야 하니 대외적으로 본다면 정해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정이 도타운 것이며 서로 어지럽히지 않으니 분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아울러 노닐므로 정이 도탑다고 할 수 있고 서로 친압하지 않으니 분별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⁸⁾고 하였다.

『부부유별도』에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관건은 양면성을 잘 다루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율과 협동, 혹은 친밀감과 독립성의 모순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이 도타우면서도 분별이 있는 경지에 대한 접근을 염원한 『부부유별도』의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양면성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중심이 아니라 항상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때에 맞는 동적인 가운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이 유교사회가 이상으로 삼는 중용(中庸)의 길일 것이다.

3.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의 시사점

부부유별이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다시는 타인들과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과 부부가 비록 한집에 살지만 남자는 밖이고 여자는 안이며 안팎이 서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가족생활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많은 요소가 양면성을 띠고 들어온다.

부부유별은 부자유친과의 관계 하에서 그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고 효용성도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가족생활교육이 단편적인 교육보다는 잘 짜여진 복합적인 구조 하에서 계획되고 실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임을 시사한다. 조선시대 아버지교육에 대하여 접근할 때 우리는 아버지교육에서 태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동이 부모로부터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남성에 대한 아버지 역할의 강조는 가족생활교육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공법만이 유용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부유별을 통해서 부자유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의 상상력을 고무하는 자극이 될 것이다. 아버지 역할의 강조가 태교 및 부성태교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규율과 아버지에 대한 규율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덕홍이 『부부유별도』를 편찬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부부유별이 부부가 서로 친압하지 않고 내외를 엄격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각기 정해진 배우가 있어서 서로 어지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발단은 『소학』의 해석문제에 있었지만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헌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경전과 사서를 조사하며 사회적인 생물학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결국은 『하도(河圖)』를 끌어들이어서 전통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데까지 이른다.

조선시대는 일부일처다첩제 사회로 알려져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성적만족을 위한 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도 자녀가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해되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은 점 또한 간과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본고 논의의 핵심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서열 차별이라는 부부관계 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 남녀관계를 규율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즉, 종법적 질서에 의해 지배된 조선사회에서 남성의 성적욕구에 대한 제한은 여성의 성적욕구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약하며 간접적이었다. 금지하고 예방하기보다는 사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여 그 결과를 알아서 자신의 행동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자유를 준 반면 그 대가는 가혹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가족생활교육이 남편교육과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명확한 철학적 근거를 가진 『부부유별도』의 특성은 우선 『하도(河圖)』의 문장을 본받아 지은 것을 들 수 있다.⁴⁹⁾ 『하도』에 대해서는 유가경전인 『상서』 『논어』 『예기』 『주역』에 그 명칭이 보이지만(문재곤, 1991) 이곳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서술된 것이 아니므로 역대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하도』의 설이 형성되었다. 때문에 이황을 필두로 정제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주역』에 온축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준칙을 구명해 내기보다는 『하도』와 『낙서(洛書)』의 도상수리에 얽매어 온갖 부회를 일삼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문재곤, 1991). 이덕홍이 『하도』에 근거하여 『부부유별도』를 지은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움이 있다. 부부유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의식에서 촉발된 그의 도설은 부부유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음양론적 인식틀을 기반으로 역동적인 부부관을 정초하는데도 기여하였지만, 현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형이상학적인 틀에 따라 논리를 도식적으로

與婦。雖有交親之道。至於居室之際。若不莊以蒞之。則恐或流於過而不中其節。淫於褻而不以其道。故必設戒。以嚴內外之別也。

48)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曰然則摯而有別之義。何如。曰。以外言定偶。非情摯乎。不相亂。非有別乎。以內言並遊。非情摯乎。不相狎。非有別乎。外以別於人之夫婦。內以別於吾之夫婦。故家家夫婦各相別。而交際以禮。則既不嫌於人之夫婦。又不瀆於吾之夫婦矣。然則一別字有兩義。而不可偏廢也。

49)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此體河圖之文。以作夫婦有別之圖。

전개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부부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분속시켜 이해했던 20세기의 사조는 퇴조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공사의 영역을 넘나드는 21세기형 부부상을 정립하는 데는 부부유별 개념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부유별은 새로운 시대인 21세기의 부부 규범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남녀 모두 공사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하는 현 시점에 부부유별은 부부간의 내외를 규정하는 소별(小別)만이 아니라 외간(外間)인들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대별(大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부유별도』를 통한 분석결과, 부부유별은 아버지됨을 보장하고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부자관계의 형성에도 지대한 의미를 가지는 규범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이나 아버지학교 등 아버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참여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현행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아버지 교육의 핵심에는 아버지됨 뿐만 아니라 남편됨과 자식됨도 중요한 요인이 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에 있어서 부부유별의 의미를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부유별은 가족생활교육에서 부부와 부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범이며 부부와 가족 형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부부유별은 인격의 형성에서도 양단(兩端)을 견비하는 인간의 형성에 관여하며 '정이 돈독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전통적인 부부상의 정립에 기여하였다. 부부유별이란 첫째,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부자관계 확립의 전제조건이 된다. 둘째, 부부가 서로 친압하지 않고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부부관계 확립의 전제조건이 된다. 『부부유별도』에 따르면 부부유별이 가족의 안정성과 부부의 애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유별은 위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조선시대 가족생활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를 고찰해본 결과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강조한 이유는 올바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요청되기 때문이었다. 부부유별의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역사적 흐름은 조선시대에는 논의의 핵심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끊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덕홍의

『부부유별도』는 그 흐름을 개인적인 의문의 해결과정에서 선도하였고 이후 이 논의는 끊임없이 변주되고 참조되었다.

【참 고 문 헌】

- 강석희(1999).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동우(2002). 여가 동기와 체험의 이해: 이중추동 모형과 이중통로 여가체험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3(2), 1-23.
- 김기영·강현철(2001).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 자유아카데미.
- 곽신환(2004). '유별'(有別)·예(禮) - '부부유별'의 해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50, 333-351.
- 김숙자(1989). 한국 유아교육에 있어서 부모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역사적 발전과정 분석을 통한 방향탐색. **한국교원대학교교수논총**, 5(2), 49-66.
- 문재곤(1991). 「하도」, 「낙서」의 형성과 개략. **중국철학**, 2(1), 123-159.
- 박례경(2008). “남녀유별(男女有別)”의 해석. **철학과 현실**, 77, 139-147.
- 박미혜(2002). 16세기 夫權과 婦權의 존재 양식. **한국여성학회지**, 18(1), 5-36.
- 보건복지가족부(2009).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서울: 관계부처 합동.
- 엄연석(2003). 간재 이덕홍의 이기심성론과 역학의 특징. **퇴계학보**, 114, 45-82.
- 여성가족부(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서울: 관계부처 합동.
- 옥선화(1997). '가족생활교육' 교과과정 평가 및 개발: 미국 대학 교과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30-50.
- 이병휴(1997). 간재 이덕홍의 시대와 생애. **퇴계학과 한국문화**, 25, 1-22.
- 정경주(2002). 간재 이덕홍의 부부유별도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8, 128-166.
- 정인재(1994).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동양 철학의 한 시론 - 인륜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윤리교육연구**, 10(21), 105-142.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2011). **가족생활교육**. 파주: 교문사.
- 馮友蘭(평여우란)(1992). **中國哲學史**. 北京: 中華書局.
- 『良齋先生文集卷之七』 「夫婦有別圖」
- 『良齋先生文集卷之七』 「五倫辨」
- 『良齋先生文集卷之八』 「良齋先生年譜」

『謙齋先生文集卷之十』 「讀禮雜識」
 『經書筍錄』 「禮記筍錄」
 『經書筍錄』 「孟子筍錄」
 『戒懼菴集卷之九』 「筍錄○中庸」
 『南塘先生文集卷之二十六』 「韓氏婦訓并序」
 『孟子』
 『孟子集註大全卷五』
 『俛宇先生文集卷之五十四』 「答金振玉癸卯」
 『俛宇先生文集卷之五十七』 「答宋羽若」
 『磻溪隨錄卷之十一』 「教選攷說」
 『白湖全書卷之三十五』 「圖說-禹紘彝倫之圖」
 『鳳巖集卷之十一』 「讀學填補總辨」
 『山堂集卷之二』 「擬褚遂良諫立武氏爲后疏」
 『三峯集卷之七』 「朝鮮經國典禮典」
 『省齋先生文集卷之二十三』 「小學說」
 『小學』
 『小學枝言』
 『小學疾書』
 『小學集成』
 『宋子大全拾遺卷之九』 「經筵講義」
 『詩經』
 『詩經講義』
 『與猶堂全書』 「示兩兒」
 『禮記』
 『雲坪先生文集卷之三』 「上尹屏溪」
 『儀禮經傳通解卷三』 「家禮」
 『丈巖先生集卷之十一』 「讀書漫錄」
 『中庸或問卷上』
 『滄溪先生集卷之二十二』 「讀書筍錄」
 『華西先生文集附錄卷之五』 「語錄」
 『晦庵集卷八十一』 「跋黃仲本朋友說」
 『晦菴集卷四十二』 「答胡廣仲」
 『厚齋先生集卷之十八』 「筍記○小學」

접수일 : 2011년 09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9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30일